

9월 2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2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주택지표 실망에 하락..다우 0.4%↓	뉴욕 증시가 24일(현지시간)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음. 주택판매 지표가 예상밖으로 감소세를 보인 점이 악재로 작용했음. 여기에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긴급 유동성 지원책을 일부 축소기로 결정한 점도 투자심리에 부담을 주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41.11포인트(0.42%) 하락한 9,707.44로 장을 마쳤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3.81포인트(1.12%) 떨어진 2,107.61을,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0.09포인트(0.95%) 내린 1,050.78을 각각 기록했음. 증시는 개장 전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청구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음. 미국 경제 회복의 열쇠를 쥔 고용이 안정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식 매수세가 강하게 일어났음. 그러나 곧이어 발표된 8월 기준주택판매가 증가 예상을 뒤엎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자 지수는 하락세로 돌아섰음. 전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성명서에서 주택 부문의 경제 활동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는 점에서 주택판매 감소가 주는 실망감은 더욱 컸음. 주택지표의 부진은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음.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배럴당 65달러 선으로 급락한 반면 안전자산인 달러와 국채는 강세를 나타냈음. 아울러 연준이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축소기로 한 점도 출구전략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음.
신규 실업수당청구 2개월 최저	노동부는 지난주(19일 마감 기준) 신규 실업수당청구가 전주대비 2만 1,000건 감소한 53만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 7월11일 주간 이후 최저 수준이며, 월가의 예상치인 55만건을 밑돈 것임.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청구는 1만 1,000건 줄어든 55만 3,500건으로 집계돼 1월말 이후 가장 적었음. 12일 기준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전체 건수는 12만 3,000건 감소한 614만건으로 파악되었음. 4주 평균치는 619만건으로 1,250건 줄었음.
기준주택판매 예상 밖 감소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8월 기준주택판매가 2.7% 감소한 연율 510만채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4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임. 월가는 판매가 소폭 증가해 535만~540만채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었음. 한편 기준주택의 중간 가격은 12.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제목	주요 내용
연준, 긴급 유동성 지원 축소	연준은 기간입찰대출창구(TAF) 규모와 기간을 다음달 500억달러와 70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달 750억달러, 84일에서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임. 연준은 11월과 12월에도 규모와 기간을 계속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물국채임대대출창구(TSLF)는 7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그리고 다시 250억달러로 축소키로 했음. 연준은 지난 7월에도 TAF와 TSLF를 축소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 축소를 결정했음.
국제유가, 수요 우려에 65달러대로 급락	국제 유가가 24일(현지시간) 뉴욕 시장에서 급락하며 2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 가운데 미국의 주택 지표 부진도 영향을 미쳤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원유(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3.09달러(4.5%) 하락한 65.89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7월29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임. 장 중에는 65.60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음.
中·日 채권 매입 중단 땀 미국 `아마겟돈`	줄리아 로버트슨 타이거펀드 회장은 24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국채 매각을 중국과 일본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버트슨 회장은 외국인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발생할 가장 큰 위협은 인플레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만약 중국과 일본이 미국 채권 매입을 중단한다면 미국인들은 인플레이가 15~20%까지 치솟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슨 회장은 "중국이 미국채 매입을 중단하지 않겠지만, 일본은 미국의 장기채권 일부를 매각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기채권 매각은 채권매입 중단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세 6개월만에 주춤	소비자들의 종합적인 경기인식을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음. 앞으로 반 년 이후 경기에 대한 각종 전망지수들은 소폭의 내림세로 돌아섰음.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본 소비자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의미. 하지만, 거의 모든 지수들이 기준치 100을 넘어서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정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과 같은 114를 기록.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3월 84에서 98로 급상승한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음. 지난달 기록했던 114는 2002년 3분기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임.
현대차, 유럽서 플릿마켓 적극 공략한다	러쉬포스 부사장은 "유럽에서 현대차의 주요 고객은 개인이고, 플릿마켓에서는 사실상 부진했다"며 "플릿마켓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늘려 성장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대차 전체 판매량 가운데 플릿마켓 판매량 비중은 28%.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의 플릿마켓 비중인 47%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 러쉬포스 부사장은 "내년까지 플릿마켓 판매량 비중을 35%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지비용 및 잔존가치 개선, 중고차 품질보증제도 시행, 가망고객 시승행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전략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